

# 국내 패션의류업계의 활용 색채전달도구 개발을 위한 색채연구

김 영 인 · 조 민 정\*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전공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Characteristics of Colors and Color Communication tools applied i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Young-in Kim · Min-jung Cho\*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communication tools and the color range applied i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To collect the color sample and related reference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during the time period, December, 1995 to June, 1996. From the responses, 2641 color samples used by 109 domestic brands, from 1993 spring/summer to 1996 spring/summe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was measured by  $L^*a^*b^*$ , and the H V/C formula found in the Munsell notation was used to calculate the data. To classify the color range served for the fashion industry, the distribution of colors are analyzed by difference of season and fabri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Dominant colors i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are Red, Yellow-red, Yellow, Purple-blue and low chromatic range colors.
2. While high value colors, such as pale, light greyish, light, and vivid tone colors, are dominant in the spring/summer season, low value colors, such as greyish, dark greyish, dull, dark and deep tone colors and warm colors such as Red, Yellow-red, are prevalent in the fall/winter season.
3. The number of colors commonly used for color planning is less than 20 colors, and both hue and tone are considered important when making color selections.
4. All brands take consumers' color preferences into consideration for color planning, and most of them also take color trends into account.
5. Hue and tone color characteristics analyzed by types of fabrics show more seasonal influence than the fabric itself.

Key Words : color communication tool, Korean fashion color, seasonal color

## I. 서론

인간은 무지개를 보면서 예술적으로 색채를 표현하거나 색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여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시도는 약 300년 전 뉴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오랜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하겠다. 뉴턴 이후 많은 물리학자, 화학자, 심리학자 및 예술가들이 색채를 과학적, 지각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색채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매우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색체계도 시지각과 관련된 많은 인자가 영향을 주는 색채 활용분야에서는 부적당하게 평가되기도 한다<sup>1)</sup>.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있는 색표집은 크게 표준색표집과 활용색표집으로 나눌 수 있다. 색채의 물리적 측정에 의한 배열, 재현측면에서 표준화된 색표집으로는 1943년에 수정된 미국의 먼셀색표집과 1969년 발표된 스웨덴의 N.C.S(Natural Color System)가 있다. 활용색표집으로는 일본의 Scotdic, 독일의 RAL, 미국의 Pantone, 영국의 British Standard 등이 있다.

먼셀 색표집은 색상, 명도, 채도의 3축성에 의한 3차원의 좌표에 등간격으로 색감각을 배열한 것으로 색을 표시하는데 용이하며 새로운 색을 먼셀 색체계로 표시하려할 때 기존의 색체계를 분리하지 않고 쉽게 색을 첨가할 수 있는 등 모든 물체색에 이 색입체에 포함되어 있다<sup>2)</sup>. 미국의 ASTM(American Standard Testing Material)은 물론 일본의 JIS(Japan Industrial Standard), 한국의 KS(Korea Standard)의 기준이 되는 등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N.C.S.(Natural Color System)는 1972년 스웨덴 표준협회(SIS)에서 채택되었고, 1979년 8월 "SIS-NCS" 색도감을 발간함으로써 공인되었다. 그 이전의 CIE 체계나 X, Y, Z의 3자극치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의 속성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문제를 지니고있는 반면에 SIS-NCS 색채도해는 이러

한 단점을 해결함으로써 과학적인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였다<sup>3)</sup>. 또한 NCS체계는 별다른 색채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색채측정도구나 배색을 위한 색채샘플 없이도 색지각의 위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으며<sup>4)</sup> 유럽의 디자인분야에서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일본 및 홍콩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각 디자인분야에서 사용되고있는 활용색이란 등간격을 이루는 표준 색공간에서 고른 분포를 이루지 못하지만 활용되는 디자인 영역의 색채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활용색은 활용되는 각 디자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그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색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색채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색의 수가 적절하여야 한다. 또한 변화있는 색채계획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색입체 안의 다양한 대표색을 가급적 폭넓게 포함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sup>5)</sup>. 이러한 조건을 갖춘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활용색은 색채관리, 색채계획, 색채전달시에 큰 효용성을 갖는다.

색채로 창출되는 고부가가치에 의한 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표준화된 색채 전달도구에 의한 효율적인 색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실정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색채전달도구의 개발에 필요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 패션업계의 색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현재 사용중인 색표집에 관한 만족도와 활용색채의 세부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브랜드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업계에서 사용하는 색채 전달도구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활용색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류브랜드를 남성복, 여성복, 스포츠캐주얼로 분류하고 국내 패션업계의 시

장규모를 고려하여 복종별 조사브랜드의 수를 결정한 후, 높은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갖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남성복 32개, 여성복 48개, 스포츠캐주얼 18개의 총 9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995년 1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설문조사와 색채샘플수집을 실시하였다.

## 2. 색채자료 수집

색채기획시 사용하는 색채선정 도구에 관한 설문 조사는 크게 색채기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색채전달도구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색채기획 담당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색채기획에 관하여는 색채선정시 고려하는 색의 수와 특성, 트렌드 색과 소비자의 색채선호 반영여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사용중인 색표집에 관한 만족도는 색표집의 크기와 모양, 색의 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활용색채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는 유행색의 주기와 계절의 영향을 고려하여 '93, '94, '95, '96까지의 기획년도를 S/S, F/W로 구분하고 각 시즌에 기획된 색채수 수가 10개 이상이 되도록 직물이나 색채샘플을 붙이도록 한 설문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641개의 색채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3. 색채측정 및 분류

수집된 색채샘플을 측색기 CE-7000을 이용하여 표준광원 C의 표준관측자 2°시야에서 측정하였으며 종이나 직물의 표면재질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3회 평균 측색치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정량화된 물리적 측색치인 CIEL\*a\*b\* 값을 먼셀의 H V/C로 전환하여 색상 및 색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의 10색상과 패션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PCCS의 12색조(pale, light, bright, vivid, strong, deep, dull, soft, dark, light grayish, grayish, dark grayish)

에 의해 시즌별, 기획년도별, 소재별 색채를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1. 색채 전달도구의 사용실태 분석

#### 1) 색채기획시 고려하는 색채 특성

국내 패션업계의 색채기획시 트렌드 칼라와 소비자의 선호색채 반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많이 반영한다"를 7점으로 하는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4점이상이 70.2%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선호색채는 모든 브랜드가 반영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트렌드 칼라와 소비자 선호색채는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가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선호색채의 조사기간은 6개월을 주기로 조사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판매자료조사, 유행정보조사, 가두조사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기획에 관한 조사내용으로는 선정하는 색채의 수와 색채특성 및 색표집의 활용 색 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색채기획시 고려하는 색의 수는 10색 이하가 32.29%, 10-20색이 2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색채기획시 20색 이하의 색을 활용하는 브랜드가 57%로 나타났고 기획하는 색의 수가 100색 이상이 되는 브랜드도 15%에 이르러 조사대상의 약 70% 브랜드가 40색 이하의 색채로 기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복의 대부분 브랜드는 20색 이하를, 스포츠캐주얼은 20-40색을 색채기획시 사용하여 복종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색채기획시에는 색조와 색상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색표집에서 주로 활용하는 색의 수는 100색 이내가 58.6%로 나타났으며 색상과 색조별로 색채를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용 색표집의 색채구성에 대해서는 70%가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색도 포함하여 모든 색상과 색조가 골고루 포함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패션업계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외국

의 색표집은 색조별로 색채가 구성되어있으나 국내

<표 1> 색채기획시 색채선정에 관한 태도

항 목		비율(%)
색채기획시 계획하는 색의 수	0-10색	32.29
	10-20색	25
	20-30색	7.29
	30-40색	4.17
	40-50색	5.2
	50-100색	10.4
	100색 이상	15
색채기획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색채특성	색조	51.2
	색상	33.04
	명도	3.08
	채도	0.44
색채기획시 색표집의 활용색의 수	100색 이내	58.57
	150색 이내	11.43
	200색 이내	0.10
	250색 이내	5.71
	250색 이상	14.28
색표집에서 색을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기준	색상별	52.70
	색조별	47.29
	명도별	0
	채도별	0

패션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색표집 구성시에는 색상 및 색조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색채배열이 필요하며 폭넓은 색상과 색조영역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해준다.

2) 활용 색표집의 만족도

국내 패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표집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미국의 Pantone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색표집에 대한 크기와 모양, 색수에 대해 만족도는 <표 2>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색표집의 sheet color book과 fan deck의 크기에 대해서도 현재보다는 크기가 다소 큰 것을 원하였다.

색표집의 모양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sheet color book에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으며 sheet color book의 현재 두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의 색표집 모양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색표집 사용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한 자유 응답에서는 대다수가 소재별 염착에 따른 색채의 차이가 좋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단과 차이가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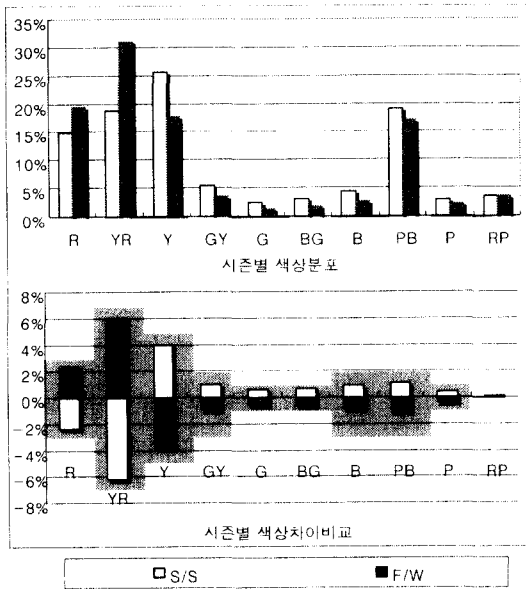
<표 2> 색표집의 모양에 대한 만족도

항 목		비율(%)
색채사용 방법	sheet color book에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60.97
	fan deck에서 절단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39.02
Sheet color book의 두께	현재의 두께가 적당하다.	53.52
	현재의 두께보다 두꺼워져도 상관없다.	32.39
	현재의 두께보다 얇았으면 좋겠다.	14.08
Sheet color book의 크기	현재의 크기가 적당하다.	51.42
	현재의 크기보다 다소 큰 것이 적당하다.	48.57
	현재보다 작은 크기가 적당하다.	0
비교용 Fan deck의 크기	현재의 크기가 적당하다.	52.3
	현재의 크기보다 컸으면 좋겠다.	48.43
	현재보다 작은 크기가 적당하다.	0
Color chip의 크기	현재의 크기(2cm×1.5cm)가 적당하다.	32.69
	현재의 크기보다 컸으며 좋겠다.	65.38
	현재의 크기보다 조금 작아져도 좋겠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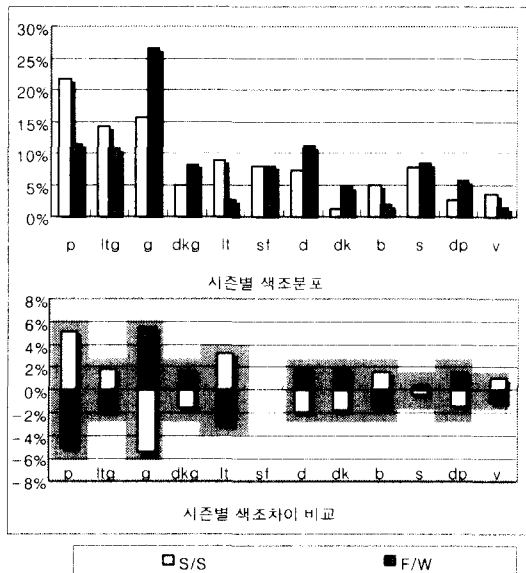
## 2.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활용 색채특성 분석

### 1) 시즌별 색채특성 분석

시즌별 색채특성은 <그림 1>, <그림 2>와 같이 S/S에는 Y, YR, PB, R의 색상 순으로 색조에서는 p, ltg, g의 저채도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



<그림 1> 시즌별 색상분포



<그림 2> 시즌별 색조분포

다. F/W에는 R, YR, Y, PB의 색상순으로 색조는 g의 사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S/S와 F/W의 차이는 난색계열 중 R과 YR이 F/W에 더 많이 사용되는 반면 Y는 여름에 더 많이 사용된 것이며, 그 외의 색상에서는 F/W보다 S/S에 더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색조차이는高明도인 p, lt, ltg, b, v의 영역이 S/S에 더 많이 사용된 것에 비해 저명도인 g, d, dk, dkg, dp의 영역은 F/W에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sf는 S/S와 F/W에서 비슷한 사용 비율을 보여 시즌에 따른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국내에서는 두 시즌 모두 R, YR, Y, PB의 색상 영역과 저채도의 색채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S시즌에는 p, ltg, lt, b, v의 밝은 색조가 F/W시즌에는 g, dkg, d, dk, dp의 어두운 색조가 많이 사용되어 시즌별 색채는 채도보다는 명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색상은 F/W에 난색계열인 R, YR의 색상영역의 활용이 더 많으며 Y를 포함한 그이외의 색상은 S/S에 더 많이 나타나 S/S에 기획 활용되는 색상의 영역이 더 넓다고 하겠다.

### 2) 기획년도별 색채특성 분석

기획년도별 색상분포는 <그림 3>과 같이 '93년도에는 Y, PB, YR, R의 순으로, '94년도에는 YR, Y, PB, R의 순으로 '95년도에는 YR, Y, R, PB의 색상영역이, '96년도에는 Y, PB, R, YR의 색상영역이 많이 사용되었다.

기획년도별 색상차이에서는 YR, PB, GY에서 많이 나타났다. YR의 경우 연도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색상으로 '94, '95년과 '93, '96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YR의 경우 '93년도 이후 '94, '95년의 사용이 점차 증가되다가 '96년 이후 많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PB와 B의 한색계열이 '95년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GY는 '96년에 증가하였다.

기획년도별 색조분포는 <그림 4>와 같이 '93, '94년도의 경우 p, g, ltg색조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95년도에는 g가 특히 많이 사용되었으며 p, ltg 순으로 저채도 영역이 많이 나타났다. '96년도에는 g가

가장 많았고 d, p, sf, ltg의 저-저채도와 중-고명도에 이르는 범위에서 유사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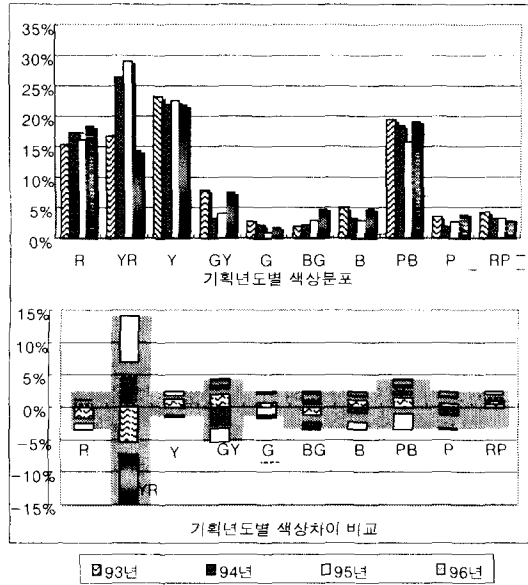
색조분포의 차이는 색상보다 비교적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채도인 g, p영역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p색조는 '94년에 가장 많이 사용

되다가 '96년 감소하였고, g의 경우 '93년이 가장 적게 '95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p, s, v, dp의 연한 색조와 선명한 색조는 '93, '94년에 더 많이 사용되었고, '95, '96년에는 전반적으로 g, d, dk의 덜 선명하고 어두운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96년에 lt, sf, d, dk, b의 색조의 사용 비율이 높아 점차 채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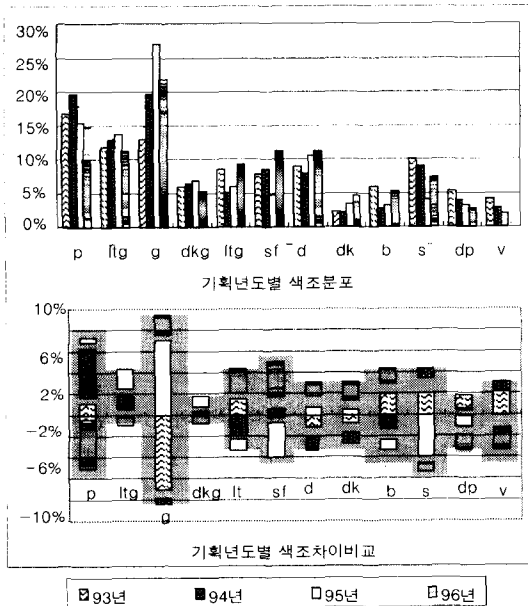
이상으로 '93-'96년의 연도에 따른 색채특성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패션업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색상영역은 연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R, YR, Y, PB의 영역이 패션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색채영역이며 조민정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Y, YR의 베이지색, PB의 네이비 블루 그리고 R의 선명한 빨강색이 주로 활용되는 색상영역이라 하겠다. 그중 국내에서는 YR색상의 활용 비율이 다른 색상에 비해 연도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93-'98년 국내의 유행예측색을 조사 분석한 선행연구<sup>6)</sup>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조사 기간 중 '94, '95년에 YR 색상의 활용이 증가한 것은 에콜로지의 영향에 의해 베이지계열 색채의 사용이 두드러졌던 이시기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색조가 점차 어두워지다가 '96년에 이르러 밝은 색조의 사용영역이 다소 증가하며 색상과 마찬가지로 색조에서 활용되는 영역이 다양해진 것도 90년대 초반 에콜로지의 뉴트럴한 자연색 중심의 색상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핑크, 녹색, 보라등으로 점차 채도가 높은 색상이 제시된 트렌드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앞에서 조사 대상의 70%이상이 색채기획시 트렌드 칼라를 반영한다고 응답한 것처럼 국내 패션업체들이 색채기획시 트렌드 색채를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유행예측색과 활용색의 비교는 색상에서 PB가 예측색보다 국내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색조에서 sf, d, dk의 중채도가 많이 사용된 예측색에 비해 국내에서는 p, ltg, g의 저채도가 많이 활용되는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90년대 유행예측색의 시계열적인 특성이 색상에 있어서는 난색을 중심으로 Y↔YR로 순환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색조는 저채도↔고채도로 반복 순환되게 나타



<그림 3> 기획년도별 색상분포



<그림 4> 기획년도별 색조분포

난 경향은 국내에서 활용되는 색채에서도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났다.

3) 소재별 색채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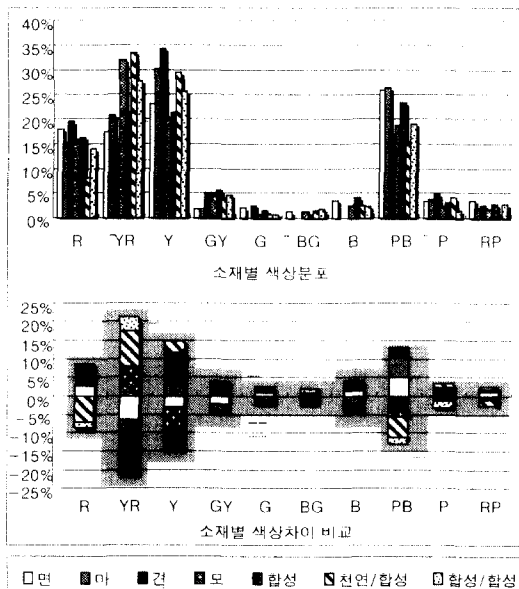
국내 활용되는 색채가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천연섬유를 면, 마, 견, 모로 분류하고 합성 100%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혼방, 합성섬유와 합성섬유의 혼방의 모두 7가지로 분류하여 색채특성을 비교하였다.

소재별 색상특성은 <그림 5>와 같이 천연섬유의 경우 면은 PB의 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R가 활용되고 YR와 Y가 적게 사용되었다. 마의 경우는 면과 같이 PB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Y였으며 YR, GY가 적게 사용되었다. 견은 Y의 색상영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R였으며, YR가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모의 경우 YR의 색상영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Y가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합성섬유 100%의 경우에는 GY, B, PB등의 색상이 많았고, Y가 적게 사용되었다.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혼방은 YR가 가장 많았고 R와 PB가 적게 사용되었다. 합성섬유와 합성섬유의 혼방은 YR의 사용이 많고 PB, P의 사용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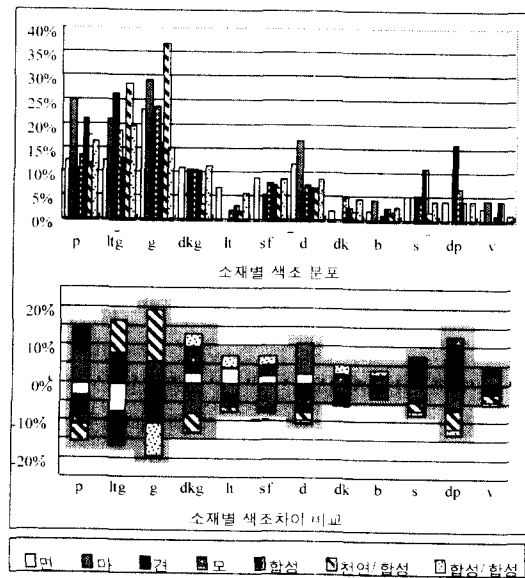
소재별 색조분포는 면의 경우 lt의 밝고 부드러운

운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고 p의 연한 색조가 적게 사용되었다. 마는 p이 많이 사용되었고 dkg가 적게 사용되었다. 견은 dp이 많이 사용되고 p이 적게 사용되었다. 모는 dkg, dk의 어두운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다. 합성섬유 100%소재는 s의 선명한 색조가 많고 ltg가 적었다. 천연/합성소재는 g가 많고 dp색조가 적었다. 합성/합성소재는 dkg가 많이 사용되고 g가 적게 사용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재별 색채특성은 각 소재가 주로 사용되는 계절과 관련되어 색채특성이 부각된다. 즉 앞의 시즌별 색상에서 S/S에 Y, PB의 색상과 연하고 밝은 색조가 많이 활용되고 F/W에 YR의 색상과 어두운 색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것처럼 소재에 있어서도 S/S에 주로 사용되는 마는 한색계열인 PB, Y의 색상영역과 p의 연한 색조영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F/W에 많이 사용되는 모는 YR과 dk의 어두운 색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합성소재와 합성/합성소재의 경우 YR과 어두운 색조가 가장 많고 Y, BG와 연한 색조도 사용되어 S/S보다는 F/W에 더 많이 활용되는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견이나 합성 100%의 소재는 특정한 계절적 색채특성을 보이지 않고 색상과 색조가 다른 소재보다 폭넓게 활용되는 것



<그림 5> 소재별 색상분포



<그림 6> 소재별 색조 분포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KIM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패션산업에서는 유행변화의 방향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며 여러기준에 의해서 색채를 선정하지만 국내에서 색채기획시에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계절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활용되는 색채특성을 반영하는 색채전달도구 개발시에는 주로 사용되는 R, YR, Y, PB와 저채도 영역의 색이 다른 색보다 더 많이 구성되어야하며, 계절별로 기획되는 색채특성과 소비자 선호색채, 트렌드 색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패션시장의 요구에 부합되는 색채의 선정, 전달 및 재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색채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 패션업계를 대상으로 색채기획시 색채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및 현재 사용중인 색표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색채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활용 색채의 전반적인 색채특성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패션업계에서 색채기획시 활용하는 색의 수는 1-20색의 범위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70%가 40색 이하의 색채로 기획하였다. 색채기획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색채특성은 색조와 색상으로 나타났다.

2. 트렌드 칼라와 소비자 선호색채의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트렌드 칼라의 경우 70%이상의 브랜드가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선호색채는 모든 브랜드가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사용중인 색표집의 크기와 두께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olor chip의 크기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큰 것을 선호하였다. 색표집을 구성하는 색의 활용도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색이 100색 이내이며 색상과 색조별로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내 패션업계에서 활용하는 색채특성을 시즌별, 기획년도별, 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시즌별 활용

색채는 S/S, F/W 시즌 모두에서 R, YR, Y, PB에 이르는 4색상 영역과 저채도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S/S에는 p, ltg, lt, v의 밝은 색채가 F/W에는 g, dkg, d, dk, dp의 어두운 색채가 많이 사용되어 시즌별 색채는 명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F/W에는 난색계열인 YR, R의 색상영역이 많이 활용되며 S/S에는 Y를 포함한 그 이외의 색상이 더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93-'96년의 기획년도에 따라 주로 많이 활용하는 색상영역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 YR, Y, PB의 영역이 패션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색채영역이며 그 중에서는 YR의 활용비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난색을 중심으로 Y↔YR로 순환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색조는 저채도↔고채도로 변화하는 특성이 나타나 색상보다는 색조의 변화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트렌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재에 따른 색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즌별 색상과 색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재별 색채특성은 소재의 자체 특성보다는 소재가 주로 사용되는 시즌의 색채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계절적 색채특성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 패션업계에 적합한 색채전달도구를 개발할 때는 국내 패션활용색의 특성과 유행색의 특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즉 색표집의 색채배열은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색채특성인 R, YR, Y, PB의 4색상 영역과 저채도의 색채영역을 충분히 반영하며, 폭넓은 색상 및 색조를 골고루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배색할 수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관리에 용이한 최소의 색영역으로 색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1) 조민정, 김영인, 국내 섬유업계의 색채사용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5), 1998
- 2) R.D. Overheim & D.L. Wagner, "Light and Color",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82.
- 3) 박은주,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미진사, 1989.



- 4) G.A. Agoston, "Color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Art and Design", 1987.
- 5) 박돈서, "한국현대 건축외장시 색채계획방법론",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86.
- 6) 김영인, 이현주, 이윤주, 국내의 유행예측색의 특성비교-프르미에르 비지옹과 삼성트렌드북의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1999
- 7) KIM Young In, CHO Min Jung, SHUL Yong Gun, PARK Min Yong, "Development of Color Range for the Fashion Industry in Korea" AIC Color the 8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lor Association, 1997